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SENIOR 조선

AUGUST
2015
VOL.40
senior.chosun.com

Come Inside

나이아가라로 떠난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
스위스 시계의 요람, 발레드주



ROGER DUBUIS

HORLOGER GENEVOIS



THE ORIGINAL AMERICAN BRAND

청담 플래그십 02-547-8883

롯데 명동 본점 02-772-3456

현대 무역센터점 02-3467-8770



Brothers

Inside

VOL.40 AUGUST 2015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시니어조선〉

06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들.

08

Get it Shirts

남성에게 셔츠는 4계절을 함께하는 아이템이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8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긴소매 셔츠가 유용하다.

10

Calm and Relax

쉽게 잠들지 못하는 여름밤, 향초를 피워보자.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더위에 지친 당신의 심신을 위로해준다.

12

이은경의 시계 여행 스위스 시계의 요람, 발레드주

제네바에서 스위스 시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발레드주는
스위스 시계 산업을 키운 요람이다. 브레게, 블랑팡,
예거 르쿨트르, 오데마 피게 등 세계 최고의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의 본사가 자리한
스위스 시계의 요람 발레드주로 떠나본다.

14

최문영·한윤실 부부의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

〈시니어조선〉과 대한항공, 캐나다관광청은
대한민국 꽃중년부부의 행복을 응원하며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한다.
캐나다 제1의 도시인 토론토와 사계절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블루마운틴 지역까지 둘러보는 꿈같은 여행.
이번 주인공은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은 최문영·한윤실 부부다.



18

시간마저 녹일 듯한 뜨거운 팜의 태양 아래로 가다

팜의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제28회 팜 마이크로네시아 아일랜드 페어.
그들의 문화와 예술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행사를 소개한다.

22

유어스테이지와 동행을...

꿈에 도달하는 과정을 함께해주는 지원군이 있다면 분명 축복받은 일.
나의 꿈을 향하는 길에 동행해줄 동반자에 관한 이야기.

23

파이토케미컬 먹기 딱 좋은 나이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찾고 있는 것일까?
식이요법 전문가 탁상숙 소장 만나 그 궁금증을 풀었다.

24

예술을 통한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

올가을, 모두가 예술과 사랑에 빠지는 축제가 열린다.
대중에게는 예술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작가에게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어포더블 아트페어가 바로 그것.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글로벌 아트페어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26

‘시니어파트너즈’가 제안하는 4가지 교육과정

은퇴 후 보다 나은 삶을 원한다면 중장년 교육 전문 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가 제안하는 4가지 교육과정에 눈을 돌려보자.

27

이달의 정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 브리오니, 성능 좋은 신차를 공개한 BMW,
여름철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크림,
부부관계 심리학에 관한 책 등을 만나보자.



로저드뷔(Roger Dubuis)가 전사의 세계에서
영감 받아 강렬하고 대담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선보이는 엑스칼리버 컬렉션 워치.
엑스칼리버 컬렉션은 파인 워치 메이킹은 물론
모든 로저드뷔 시계의 바탕이 되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담은 로저드뷔의 대표적인 라인이다.
아더 왕의 명검 엑스칼리버를 나타내는
검(劍)형 시침과 분침, 트리플 러그,
플루티드(fluted) 베젤, 강렬한 로만 인덱스는
엑스칼리버 컬렉션만의 특징이다.
그중 엑스칼리버 스텔레톤 더블 플라잉 투르비용은
독특한 건축적 구조의 현대적인 스텔레톤
무브먼트와 두 개의 플라잉 투르비용이 탑재된
최초의 혁신적인 워치다.
문의 02-3449-5914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PARTN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이사 조규숙 ks.cho@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황정원 hjw@chosun.com
기자 조가희 cgh@chosun.com
객원기자 김우성 ws.kim@yourstage.com
이은정 euninsa@gmail.com
사진 C. 영상미디어
디자이너 장선희 rioba@chosun.com
교열 최귀열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f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교회사
출력 아이맨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 지역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서울 강남, 신사, 압구정, 청담, 잠실, 송파, 이태원,
상청 및 경기 분당의 변화가 카페, 레스토랑, 병원, 은행,
호텔, 스포츠센터, 수입자동차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탐침’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KOREAN AIR

대한항공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캐나다 여행



사진 :시니어조선

대한항공 밴쿠버왕복 밴쿠버 빅토리아 팩스빌 하이라이트 7일 **리마인드 허니문 / 캐나다 힐링여행** 349만원부터 | 월요일, 수요일 출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자 살기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캐나다 **밴쿠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빅토리아**의 그림같은 도심과 **팩스빌** 해안가의 잊지못할 노을.
시간이 멈춘듯한 여유로움 속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나를 만나는 힐링여행.
지금 이순간,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 곳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가평있는 여행
노랑중선
www.jltour.co.kr

02-2022-7284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02-2075-3004

행복여행
TOUR 2000

02-2021-2060

참좋은여행

02-2188-4070

LOTTE Holidays
롯데홀리데이

02-3782-3000

HNT 하나투어

1577-1233

모드투어
MODE TOUR

1544-5252

한진관광

1566-1155

Canada
keep exploring



LIQUOR

발렌타인, 골프 앰배서더
‘프로골프 선수 윤채영’ 선정

발렌타인은 한화에서 활약 중인 프로골프 선수 윤채영을 골프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앰배서더로 선정된 윤채영 선수는 2006년부터 정규투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해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9년 만에 첫 우승을 거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7회 연속 KLPGA 홍보모델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발렌타인은 “윤채영 선수는 데뷔 이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대회에서 데뷔 9년 만에 첫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발렌타인이 추구하는 스테이 트루(Stay True)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다”라며 “KLPGA를 대표하는 윤채영 선수와 함께 골프 마케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발렌타인에서 진행하는 골프 대회와 행사는 물론 골프 레슨, 골프 라운딩 등 소비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발렌타인은 한국 프로골프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국내 골프대회를 후원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아마추어 골프대회인 ‘발렌타인 인터내셔널 컵’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02-3466-5800 Writer 조가희



WATCH

로저드뷔, 벨벳 오프 조아이에
비스포크 블루 사파이어 워치

스위스 제네바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로저드뷔가 전 세계 하나 뿐인 워치 ‘벨벳 오프 조아이에 비스포크 블루 사파이어’를 오는 8월 현대백화점 본점 로저드뷔 부티크에서만 단독 공개한다. 셀프 와인딩 칼리버 RD821을 탑재한 이 타임피스에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풀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136개의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수놓은 다이얼, 다이얼과 스트랩이 만나는 부분에 놓인 블루 사파이어가 조화를 이루며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준다. ‘벨벳 오프 조아이에 비스포크 블루 사파이어’ 워치는 ‘벨벳 오프 조아이에 비스포크 라인’ 중 하나로 맞춤 주문을 통해서만 생산된다. 케이스는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로 선택할 수 있고, 보석은 블루, 핑크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고를 수 있다. 스트랩도 원하는 보석 컬러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의 사이니 앨리게이터 소재의 스트랩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문의 02-3449-5914 Writer 조가희

PERFUME

파코라반, 원밀리언 코롱 향수 출시

파코라반이 여름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남성향수 ‘원밀리언 코롱’을 출시한다. 이미 선보인 파코라반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원밀리언 향수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백만장자의 꿈을 담은 원밀리언 코롱은 상쾌한 향취가 매력적인 향수다. 첫 향은 프레시한 마린, 카다멈, 만다린의 시트러스한 향이 시원하게 퍼진다. 그 뒤를 이어 시나몬, 주니퍼 베리의 깊고 개성 있는 향기가 더해지며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끝향은 레더, 톱카빈을 지나며 은은하게 남성미를 강조하며 마무리된다. 보틀은 원밀리언 코롱의 테마를 제대로 살렸다. 백만장자의 금괴를 형상화한 골드 컬러 보틀의 투명함을 살려 더 시원하고 프레시한 원밀리언 코롱의 향을 그대로 표현했다. 여기에 원밀리언 특유의 로고를 양각으로 새겨 넣는 등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원밀리언 코롱은 샤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성에게 추천할 만하다. 2015년 파코라반의 신제품 원밀리언 코롱은 주요 백화점 매장, BTY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원밀리언 코롱 125ml 9만8천원, 75ml 7만3천원 문의 02-3443-5050 Writer 조가희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



CAR

렉서스, 영화감독 일반공모

렉서스는 ‘킹스 스피치’, ‘비긴 어게인’ 등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제작사 와인스타인사(The Weinstein Company, TWC)와 공동으로 렉서스의 세 번째 단편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를 만들 신인감독을 선발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렉서스 단편영화’는 브랜드 캠페인 ‘Amazing in Motion’의 일환으로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진행되어왔다. 이번 3탄에서는 렉서스 단편영화 최초로 세계 각국의 신진 영화감독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실시, 최종 선발된 4인의 감독이 와인스타인사와 함께 직접 영화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프로젝트 공식 웹사이트(www.lexusshortfilms.com)에 접속, 이미 발표한 적이 있거나 새롭게 작업한 20분 이하 단편을 Withoutabox(www.withoutabox.com)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마감일은 10월 25일까지이며, 11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2015 나파밸리 영화제(Napa Valley Film Festival)’의 폐막식에서 최종 4인(4팀)의 감독이 발표된다. 선발된 감독들은 와인스타인사의 지원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게 되며, 완성된 작품은 ‘로드 아일랜드 국제 영화제’, ‘베니스 국제 영화제’, ‘밴쿠버 국제 영화제’, ‘나파밸리 영화제’ 등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Writer 이은정

STAGE

장 주네의 유작 〈스플렌디즈〉 한국 초연

베케트, 이오네스코와 함께 세계 3대 부조리 작가로 인정받는 장 주네의 유작 〈스플렌디즈〉가 8월 한국에서 첫 무대에 오른다. 미국 번역가의 최고급 호텔 스피렌디즈 7층에서 7명의 갱스터가 백만장자의 딸을 인질로 잡고 호텔을 장악한 뒤 경찰과 대치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프랑스 연극계의 화제 연출가 아르튀르 노지시엘이 연출을 맡아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극적 미학과 영화적 미장센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아르튀르 노지시엘은 〈줄리어스 시저(2008)〉에 이어 다시 한 번 미국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미국식 ‘갱스터’의 이미지를 무대로 불러왔다. 이번 공연은 미국의 실력파 배우들과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무대 감독과 조명 감독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호흡을 맞추며 장 주네가 말하고자 한 부조리한 상황에서의 존재론적 비애를 그린다. 영어로 공연되며 한글자막이 제공될 예정이다. 8월 21일~22일 공연, 명동예술극장.

문의 1644-2003 Writer 황정원



©Frédéric Nauczyciel



365일 피부 지킴이
도심 속 따가운
자외선을 *산뜻하게* 차단하라



닥터코스메틱 이지함화장품

판매처 : 이지함화장품 쇼핑몰(www.ljhamall.com), 드렉스토어(GS왓슨스)
이지함피부과 : 강남, 강북, 구리, 구미, 분당, 부산, 이대, 일산, 여의도, 청담, 천호
소비자상담실 : 080-700-1544



Get it Shirts

남성에게 셔츠는 4계절을 함께하는 아이템이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8월에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긴소매 셔츠가 유용하다.
평일에는 정장 팬츠 속에 넣어 깔끔한 비즈니스 룩으로,
주말에는 청바지나 반바지를 매치해
활동적인 룩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이경호(C, 영상미디어)



맨 위 왼쪽부터 좌우 순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데님 컬러 셔츠는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31만원 **일레븐티**. 블랙 실크 보타이 23만원 **브리오니**. 감촉이 부드러우며, 유연한 실루엣으로 자연스러운 구김이 특징이다. 33만원 **일레븐티**. 노란색과 스카이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풍긴다. 10만9천원 **브룩스브라더스 레드 플리스**. 도트 패턴이 경쾌한 느낌을 주고, 소매를 걷었을 때 보이는 블루 컬러가 특징이다. 10만9천원 **바나나 리퍼블릭**. 화려한 그래픽 패턴이 돋보이는 실크 타이 35만원 **브리오니**. 리넨으로 만들어 통풍성이 좋고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72만원 **브리오니**. 생기 있는 오렌지빛 컬러 셔츠로 활력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다. 15만8천원 **라코스테**. 날아가는 새 문양 패턴이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 16만9천원 **브룩스브라더스 레드 플리스**. 메인 컬러로 디자인한 바이올렛과 타탄체크 패턴이 멋스럽게 어우러진다. 25만원 **닥스**.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심플한 룩을 연출하기 좋다. 15만8천원 **클럽 모나코**.

문의

닥스 1544-5114 라코스테 1588-9619 바나나 리퍼블릭 02-6137-5473
브룩스브라더스 레드 플리스 02-6002-1818 브리오니 02-540-4723
일레븐티 02-3449-5360 클럽 모나코 02-516-3993

Affordable Art Fair

어포더블 아트페어 서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알림 1, 2관

2015. 09. 11 - 13

티켓문의 <http://affordableartfair.com/seoul>

연락처 02.3450.1562

ART FOR YOU

50만원부터 현대 미술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위한 **아트페어**

www.affordableartfair.com/seoul

www.facebook.com/affordableartfairseoul http://instagram.com/aaf_seoul

CALM AND RELAX

태양의 열기가 식지 않는 여름밤. 쉽게 잠들지 못할 때 향초를 피워보자.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더위에 지친 당신의 심신을 위로해준다. 바다를 떠오르게 하는 시원한 향부터 향긋한 허브 향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각각 다른 향의 초를 동시에 피워 새로운 향으로 집 안을 메워도 좋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이경호(C, 영상미디어)

- 1 **르 라보 뽀띠그랭**21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 세비아에 위치한 오렌지 블라섬 정원의 향을 담았으며, 빈티지한 디자인의 패키지가 돋보인다. 195g, 12만원.
- 2 **딤텍 멘트 베르트** 허브 정원에서 갓 수확한 듯한 싱싱한 민트 향을 느낄 수 있다. 190g, 7만5천원.
- 3 **딤텍 스너퍼** 향초를 끌 때 피어나는 검은 연기를 막아준다. 3만8천원.
- 4 **조말론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 소금기를 머금은 신선한 바다 공기, 세이지의 우디한 흙내음이 어우러진 자연의 에너지를 담았다. 200g, 9만8천원.
- 5 **산타 마리아 노벨라 칸델라 릴랙스**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는 계피, 오렌지, 로즈메리와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 만들었다. 300g, 6만3천원.
- 6 **씨호 트루동 조세핀** 조세핀이 꾸민 정원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정원으로 들어오는 동이 틀 무렵의 빛과 장미, 동백나무, 붓꽃의 향을 표현했다. 270g, 15만원.
- 7 **에디션 드 퍼퓸 프레데릭 말 노트르 담** 따뜻하고 평온한 성당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220g, 9만9천원.
- 8 **바이레도 버닝 로즈 캔들** 스모키한 우디 향과 로즈 애플 루트의 깊은 향이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240g, 9만6천원.
- 9 **메종 프란시스 커징 뿌르 르 수와** 깊고 그윽한 밤을 떠올리며 만든 향초로 달콤한 하니, 머스키, 우디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385g, 11만원.
- 10 **딤텍 워크 트리머** 캔들의 심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향초를 피울 때 보틀에 검은 그을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준다. 3만8천원.
- 11, 12 **아닉구말 수르피기에** 익어가는 무화과 열매의 달콤하고 감미로운 향기를 담았다. 175g, 9만8천원, **릴 오 페시** 트러스 라인인 시원한 향과 아시아의 티 문화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패키지가 특징이다. 210g, 12만7천원.
- 13 **아쿠아 디 파르마 우롱 티 리브스 캔들** 우롱 티 잎에서 추출한 에센스를 사용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을 내며, 감각적인 색과 우롱 잎 디자인이 멋스럽다. 900g, 15만5천원.

문의
딤텍 02-514-5167
르 라보 02-517-5218
메종 프란시스 커징 02-514-5167
바이레도 02-3479-1688
산타 마리아 노벨라 02-546-1612
씨호 트루동 02-517-5218
아닉구말 080-023-5454
아쿠아 디 파르마 02-517-5218
에디션 드 퍼퓸 프레데릭 말 02-3479-6258
조말론 02-3440-2562

올 여름 최고의 매직쇼!

반전에 반전이 거듭. 단순한 마술이 아니다! 뉴시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전율 스포츠동아

감출 수 없는 흥분! 이라서 국민마술사 마이데일리

최현우 매직콘서트 더브레인 THE BRAIN

재관람 할인 20% 최현우 지난 공연 티켓 소지자
화목한 할인 20% 화, 목요일 공연
3,4인 패키지 최대 35% VIP, R석 한정
학생 최대 30% 평일 30%, 주말 20%

Magical Event 1
마술사 최현우와의 포토타임
평일(화~금) 공연 유료관객 대상

Magical Event 2
최현우와의 도슨트 프로그램
유료 3회 이상 관람자 대상, 마술사 최현우에게 직접 듣는
마술설명과 마술의 궁금증을 풀어 볼 수 있는 기회!
(자세한 내용 예매처 참조)

7.31~8.30  광림아트센터 | BBCH 홀                              



이은경의 시계여행

스위스 시계의 요람, 발레드주

제네바에서 스위스 시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발레드주는 스위스 시계 산업을 키운 요람이다. 브레게, 블랑팡, 예거 르쿨트르, 오데마 피게 등 세계 최고의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의 본사가 자리한, 스위스 시계의 요람 발레드주로 떠나본다.

Writer 이은경(시계 컨설턴트, <시계, 남자를 말하다> 저자)

스위스의 영어 이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위스부터 스위스(Switzerland) 등이 있다. 우리가 스위스라고 부르는 국가의 정식 이름은 스위스 연방공화국(Swiss Confederation)이다. 총 26개의 주(Canton, 州)로 구성된 스위스의 주 중에는 취리히, 베른, 바젤, 루체른, 제네바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말고도 여러 개가 있다. 그중 시계 애호가라면 꼭 알아야 할 주가 있다. 바로 보 주(Canton of Vaud)다.

세계적인 시계 공방이 밀집한 작은 산골 마을

스위스 서남부에 위치한 보 주는 남쪽으로는 레만 호, 북쪽으로는 뇌샤텔 호를 면하며 서쪽은 쥐라 산맥 기슭을 경계로 프랑스와 국경을 이룬다. 주도(州都)인 로잔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가 있는 도시다. 그러나 시계 애호가들에게 있어 보 주에서 기억해야 할 지명은 예거 르쿨트르의 본사가 있는 르 상티에(Le Sentier)와 블랑팡,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의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르 브라쉬스(Le Brassus) 등이다. 보 주에 속한 르 상티에와 르 브라쉬스 같은 작은 마을을 통틀어 발레드주(Vallée de Joux)라고 부른다.

발레드주는 '주 계곡'이라는 뜻으로, 쥐라 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 해발 10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17세기 제네바에서 시작된 스위스 시계 산업은 곧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점차 그 주변 지역으로 뿔어나갔는데 가장 먼저 시계 장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발레드주 지역이다. 제네바 인근의 발레드주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농부였다. 그들은 여름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지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이곳의 겨울 날씨는 눈이 유난히 많았기에, 집 안에서 길고 긴 겨울을 보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제네바의 시계 장인들이 점차 발레드주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골 마을은 시계 같은 정밀 부품을 다루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고, 시계 제작을 위한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제네바의 시계 장인들이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신교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발레드주에서 활동한 시계 장인들은 선대로부터 시계 제조 기술을 익힌 2세거나, 농부이자 동시에 워치메이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시계 제조뿐 아니라 시계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생산하여 주로 제네바의 시계 공방에 공급하는 일도 했다.



사진 depositphotos



3



4

간혹 발레드주와 쥐라 산맥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발레드주는 쥐라 산맥의 일부로, 보주에 속한 지역을 일컫는 것이다. 뇌샤텔 주에 속한 라쇼드퐁이나 르로클은 발레드주가 아니다. 현재 발레드주에는 블랑팡, 브레게, 오데마 피게, 예거 르쿨트르의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불가리 등의 공방이 주(Joux) 호수를 중심으로 자리해 있다. 실제 발레드주 지역을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계 브랜드 이름이 새겨진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브랜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어져온 스위스 전통 가옥 형태의 공방부터 현대적으로 지은 첨단 매뉴팩처 등이 바로 그곳이다.

시계 제조 역사를 한눈에, 에스파스 오를로제 박물관

예거 르쿨트르는 발레드주를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 중 하나다. 1833년 앙투안 르쿨트르(Antoine LeCoultre)는 혹독한 추위로 유명한 스위스의 외딴 지역 발레드주의 르 상티에에 자신만의 위치메이킹 공방을 설립했다. 앙투안 르쿨트르는 독자적인 공방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당시 스위스 시계 제조업은 대부분 개별 공방으로 이루어진 가내 수공업 형태를 띠었으나 앙투안 르쿨트르는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시계 관련 장인들을 한데 모아 지금과 같은 '매뉴팩처'라 불리는 체계적인 위치메이킹 공방을 탄생시켰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현재까지도 고급 시계 브랜드의 요람인 발레드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채, 위치메이킹에 필요한 모든 핵심 작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오데마 피게가 시작된 곳도 바로 발레드주의 르 브라쉬스다. 르 브라쉬스의 시계 제작자 집안에서 태어난 줄스 루이 오데마(Jules-Louis Audemars)와 에드워드 오귀스트 피게(Edward-Auguste Piguet)는 컴플리케이션 시계에 대해 뜻을 같이하며 1875년에 오데마 피게를 창업했다. 오데마 피게는 1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4대째 가족 기업을 이어오고 있다. 1875년 설립 당시의 건물은 현재 브랜드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 발레드주 지역에서 시계 제조의 역사가 시작된 18세기 타임피스부터 오데마 피게의 빈티지 피스가 전시되어 있다. 발레드주 지역에는 이 지역의 시계 제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 박물관, 에스파스 오를로제(Espace Horloger)가 있다. 1996년 오픈한 박물관은 발레드주 최초의 시계 박물관으로 과거 예거 르쿨트르의 매뉴팩처 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리뉴얼한 것이다. 2012년 새롭게



5

리노베이션해 내부 시설을 현대화했는데, 시계 조립 체험 및 시계와 관련한 다양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제네바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은 많지만, 발레드주를 일부러 방문하는 사람은 웬만한 시계 애호가만 아니고서는 거의 없다. 제네바 파텍 필립 뮤지엄은 굳이 시계 애호가만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 같은 곳이라면, 발레드주의 에스파스 오를로제는 그곳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제네바 또는 몽트뢰를 방문한다면, 반나절 정도의 일정으로 차량을 이용해 발레드주의 시계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평화로운 스위스의 시골 마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로고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유명 관광 지도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지만, 예거 르쿨트르와 오데마 피게가 탄생하고 브레게와 블랑팡 본사가 있으며 파텍 필립과 바쉐론 콘스탄틴의 공장도 있는 발레드주는 시계 애호가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임에 틀림없다.



6

- 1 오데마 피게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된 그랑 컴플리케이션.
- 2 발레드주 지역의 르 브라쉬스 마을의 겨울 아침 풍경.
- 3 1833년 앙투안 르쿨트르가 설립한 최초의 시계공방 모습.
- 4 1866년 현대식 시설의 매뉴팩처 내부.
- 5 예거 르쿨트르의 창립자 앙투안 르쿨트르.
- 6 오데마 피게의 창시자인 줄스 루이 오데마와 에드워드 오귀스트 피게.
- 7 블랑팡의 시계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
- 8 발레드주 지역의 시계 제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 박물관, 에스파스 오를로제.



7



8

꽃중년 부부의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 천혜의 비경과 함께한 꿈같은 여정



나폴레옹의 남동생이 신혼여행지로 선택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허니문 여행지로 각광받는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제1의 도시인 토론토와 사계절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블루마운틴 지역까지 둘러보는 꿈같은 여행. <시니어조선>과 대한항공, 캐나다관광청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리마인드 허니문을 대한민국 꽃중년 부부에게 선물한다. 이번 주인공은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은 최문영(48)·한윤실(여·47) 부부다.

Writer 박기석 · Photographer 한준호(C, 영상미디어)

한 씨가 이번 여행 이벤트에 응모한 건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기회였다. 올 1월, 부부는 20주년 결혼기념일을 병실에서 보냈다. 한 씨가 척추염이 악화돼 입원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홍보실장인 최 씨도 틈만 나면 병원에서 한 씨를 간호했다. 기념 여행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다. 한 씨는 두 달여 입원을 끝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도 승무원, CS감사로 꾸준히 일해온 한 씨에겐 어색한 시간이었다. 그가 <시니어조선>의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를 본 것도 이때. 괜히 기대했다가 낙망하고 실망할 것을 걱정한 남편의 구박에도 한 씨는 정성 들여 응모 손편지를 보냈다. 최 씨의 표현대로 결국 ‘일을 낸’ 한 씨. “20년간 묵묵히 나와 함께해준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던 아내 한윤실 씨와 최문영 씨가 떠난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을 소개한다.





세계적인 신혼여행지,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한 7월의 첫날, 오전부터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다. 기온도 적당히 포근했다. 이맘때 토론토 지역은 최고 기온이 평균 섭씨 26도 정도다. 우리나라 초여름과 비슷해 그리 무덥지 않다.

부부의 첫 행선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였다. 공항에서 자동차로 달리면 약 2시간이 걸린다. '나이아가라'는 원주민 언어로 '천둥 소리를 내는 물기둥'이라는 뜻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 3대 폭포에 꼽힐 정도로 웅장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걸쳐 있다. 백미는 캐나다 영토에서 바라보는 캐나다령의 폭포다. 높이 54m, 너비 790m로 미국령 폭포보다 2배 이상 크다. 강물의 90% 이상이 캐나다 폭포로 떨어질 정도다. 1분에 육조 100만 개를 채울 정도라는 설명에 걸맞게 50여 미터 아래에서 생긴 물보라가 눈 높이까지 튀었다. 폭포를 즐기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부부는 먼저 헬기 투어를 택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약 15분간 상공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헬기를 처음 타서 설렌다"는 한 씨는 살짝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내 셀카를 찍으며 비행(飛行)을 즐겼다. 이리호(湖)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져 온타리오 호로 흐르는 물이 사진의 배경이었다. 폭포뿐만 아니라 배경 속에 있는 모든 게 손톱만큼 작아져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땅에서는 생생하게 폭포를 경험하는 코스가 있다. '저니 비하인드 더 폴스(Journey Behind the Falls)'에서는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뒤쪽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폭포수가 쏟아져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다. '혼블로어 크루즈(Hornblower Cruise)' 유람선을 타면 폭포 체험을 완성하는 셈이다. 떨어지는 물줄기의 불과 수 미터 앞까지 유람선이 이동해 폭포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하얀 포말은 갑판 위 모두의 정신을 쏙 빼놓는다. 압도하는 대자연 앞에서 사람들은 웃으며 이 광경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몹시 바빠 보였다.

부부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들이 머무르는 올드 스톤 인 호텔(Old Stone Inn Hotel)은 100년 넘은 밀 제분소 공장을 리모델링한 버티크 호텔이다. 고풍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고즈넉하다.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부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다.

이들은 오후 10시가 되기 전 다시 나이아가라 폭포로 나섰다. 캐나다의 건국기념일인 이날 오후 10시, 폭포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부부는 불꽃놀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혼블로어 크루즈에 다시 탑승했다. 오후와는 달리 유람선은 폭포 중간 근처에 머물렀다. 2층 갑판에서 와인을 나누며 한껏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던 그때, 폭죽이 터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포의 정중앙에서 10여 분간 휘황찬란한 불빛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이 시간은 문자 그대로 특별했다. 여운을 남긴 채 숙소로 걸어가던 중 부부는 대관람차 '스카이휠(SkyWheel)'에 눈과 발을 돌렸다. 관람차 내부에서 보이는 폭포의 울긋불긋한 불빛이 부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둘째 날, 부부에게 뜻밖의 손님이 방문했다. 나이아가라 폭포시(市)의 짐 디오다티(Jim Diodati) 시장이 직접 부부의 허니문을 축하하러 호텔을 찾아온 것이다. 시장의 환대 덕에 부부는 기분 좋게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Niagara-On-the-Lake)'로 떠났다. 부부는 도중에 와이너리에 들렀다. 전 세계 아이스와인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캐나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다. 20여 년 동안 명성을 유지하는 리프 에스테이트 와이너리(Reif



- 1 보기만 해도 가슴이 뵙 뚫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폭포를 향하는 유람선이 혼블로어 크루즈다.
- 2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재현해놓은 듯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 3, 5 부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남겼다.
- 4 리프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에 방문하면 와인 생산 과정을 보고 시음도 할 수 있다.
- 6 디스틸러리 역사 지구. '문화의 거리'답게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 7 온타리오 호 너머로 보이는 토론토 도심. 스카이라인에서 우뚝 솟은 탑이 CN타워다.
- 8 부부의 리마인드 허니문을 기념하러 온 디오다티 나이아가라 폭포 시장. 부부는 시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 9 토론토 도심 속 고성(古城) 카사 로마.
- 10 파머스 마켓에는 인근에서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농작물이 가득하다.

Estate Winery)에서 부부는 레드, 화이트 아이스와인을 맛봤다. "수많은 와인을 섭렵했다"던 최 씨도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일품인 이곳의 와인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입을 즐겁게 한 뒤에는 눈이 호강할 차례였다.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풍의 모습이 거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거리마다 꽃을 이용해 조경이 아주 잘 돼 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텔(Prince of Wales Hotel)'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머무르며 휴가를 보냈다는 호텔은 고풍스럽기 그지없다. 중심가에는 크리스마스 테마로 한 기념품점 등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모여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20~30분마다 셔틀버스가 다녀 함께 관광하기에도 좋다. 마을의 속살을 느끼고 싶던 부부는 마차 투어를 택했다. 중심가에서 벗어나 온타리오 호를 끼고 있는 마을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었다. "유럽풍의 하얀 단독 주택이 맘에 쏙 든다"던 한 씨는 남편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했다.

볼거리 가득한 토론토 도심 여행

둘째 날 오후 부부는 토론토로 향했다. 도심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디스틸러리 역사 지구(The Distillery District)'다. 신진 예술가들의 부티크, 갤러리, 극장, 공방과 세련된 음식점, 카페 등이 뿔뿔이 들어선 곳이다. 지금은 예술, 문화의 중심지지만 이곳은 원래 북미에서 최대 규모의 양조장 터였다. 빅토리아 양식의 산업 건축물로 잘 보존돼 토론토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본격적인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오후 5시, 주차

장에는 빈 자리가 거의 없었다. 셋째 날 본격적인 도심 여행이 시작됐다. 부부는 던다스 광장(Dundas Square)에서 시티 투어 버스를 탔다. 탑승 전부터 기대를 숨기지 않던 부부는 2층 버스를 타고 곳곳을 둘러봤다. 오래된 석조 건물에 크리스털 건물이 붙어 있어 독특한 외관을 보이는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캐나다 제1의 명문 토론토대학교, 토론토의 명품 거리 요크빌 등 명소를 지나칠 때마다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사계절 언제나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블루마운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여행의 중반이 지나갔다. 여행의 다섯째 날, 부부는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몸소 느끼기 위해 '블루마운틴(The Blue Mountains)' 지역으로 떠났다. 토론토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에서 부부는 유람선 소풍을 먼저 즐겼다. 5대호 중 두 번째로 크다는 휴런 호(湖) 입구인 '조지

이들이 처음 내린 곳은 거대한 성 '카사 로마(Casa Loma)'였다. 1911년부터 3년간 유럽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와 지었다는 설명답게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이다. 전부 들어가보기도 힘든 98개의 방과 정원, 식물원 등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구경거리가 가득하다. 이 때문에 여기서 결혼 사진을 찍는 예비 부부도 많다. 리마인드 허니문을 즐기는 부부도 20년 전 신혼을 생각하며 추억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후에는 토론토 최초의 시장 세인트 로렌스 마켓(St. Lawrence Market)에서 신선한 과일을 샀다. 제철을 맞은 체리, 자두, 복숭아 등이 아주 싱싱했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재료, 예술가·공예가들이 가져온 자기만의 수공예품 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2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과거 시 청사였던 건물에 위치해 있다.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이곳은 도심에 있어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다.

이어서 부부는 토론토와 캐나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CN타워로 향했다. 먼저 근처에 있는 리플리 아쿠아리움(Ripley's Aquarium of Canada)에 들렀다. 캐나다 최대의 실내 수족관인 이곳은 9개로 나뉜 구역에 1만6000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가득하다.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았다. 특별한 기대 없이 입장한 부부는 각종 체험에 참여하며 원래 일정보다 30분 이상을 더 즐겼다.

부부는 수족관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CN타워로 걸어갔다. 553미터 높이의 이 탑에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58초 만에 346미터 전망대에 도착한다. 여기서 한 층 더 올라가면 레스토랑이 나온다. 내부가 360도로 회전해 식사하며 온타리오 호와 토론토 시내 모두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넷째 날 부부는 토론토 근교에 있는 평화로운 마을 세인트 제이콥스(St. Jacobs)로 향했다. 이곳은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Mennonite) 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들은 전기와 자동차 등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전통 방식의 삶을 추구한다. 현재는 많은 메노나이트 신자가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교통수단으로 마차를 이용하는 현지인들이 종종 보였다. 이들은 손재주가 뛰어나 퀼트, 메이플 시럽과 잼 등 수제품을 잘 만든다. 한 씨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것 같다"며 그들의 작품을 볼 때마다 입을 떡 벌렸다. 서양식 주점인 펍을 겸하는 소규모 양조장과 모형 기차 박물관 등도 가볼 만하다. 기차 박물관은 1950년대 남부 온타리오의 마을과 기차길을 그대로 재현해놓았다. 40여 년 동안 운영한 유서 깊은 곳이다. 세인트 제이콥스에서는 증기기관차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문을 여는 파머스 마켓 운영 시간에 맞춰 기차가 운행한다. 장이 설 땐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대성황을 이룬다.

- 1 우거진 침엽수림에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시닉 케이브.
- 2 부부는 블루마운틴에서 카약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했다.
- 3 세인트 제이콥스에서 파머스 마켓으로 향하는 증기기관차.
- 4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리플리 아쿠아리움.
- 5 메노나이트 신자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메이플 시럽과 잼, 파머스 마켓에 장이 설 때 싸게 구매할 수 있다.
- 6 블루마운틴 지역은 스키장 슬로프를 활용해 사계절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곤돌라를 타고 블루마운틴 꼭대기까지 오르는 부부의 모습.
- 7 블루마운틴 지역에 있는 르 스칸디나브 스파(Le Scandinave Spa). 북유럽식 노천 온천으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 만(Georgian Bay)'에서의 평화로운 휴식이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챙겨 유람선을 탄 이들은 1시간 반 동안 마음껏 여유를 누렸다.

숙소가 모여 있는 휴양지에는 호텔 등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야외 수영장, 액티비티 등 즐길 거리가 즐비하다. 부부는 호텔 뒤편에 자리한 연못에서 카약을 타고, 산책도 했다.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유명한 산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블루마운틴 지역의 푸른 숲을 감상할 수 있다고. 이튿날 부부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겼다. 숲 속에 레일이 조성돼 우거진 나무 틈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1인용 롤러코스터는 최대 시속이 42킬로미터까지 나온다. 지면 위 15미터 높이에서 와이어 하나에 매달려 100여 미터를 날아가는 짐라인도 스릴 만점이다. 아내의 몸에 무리가 갈까 걱정스러워하던 최 씨가 신나게 액티비티를 즐기는 아내의 모습에 나지막이 혼잣말했다. "그간 아프다던 말은 다 사기였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닉 케이브(Scenic Caves)' 지역에서 30분 정도 간단히 산행을 했다. 울창한 침엽수림에서 삼림욕을 즐기고, 블루마운틴 휴양지와 조지아 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는 마음껏 경치를 감상했다. 온타리오 주 남부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이다. 높이 25미터에 있는 126미터의 흔들다리를 건널 땐 공연히 웃음이 새어나온다.

짧은 트레킹을 마친 부부는 근처에 있는 북유럽식 온천에 방문했다. 2006년 개장한 뒤 여러 차례 북미 지역 온천 순위 상위 50위 안에 드는 온천이다. 잔잔한 명상 음악이 흘러나와 아늑하고 적막하기까지 한 숲 속에 온도와 용도에 따라 탕이 다섯 개로 나뉘어 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먹과 나무 의자도 여러 개 준비돼 있었다. 바쁜 가운데 잠깐의 휴식, 망중한이던 부부의 캐나다 여행도 끝나가고 있었다. 부부는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캐나다인 특유의 여유로움을 꼽았다. "어디를 가도 서두르지 않고 즐기는 게 진정한 여행"이라는 최 씨. 부부는 "캐나다에서 이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SCANDINAVE SPA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캐나다 여행
 안전하고 편리한 캐나다 여행을 원한다면 시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적기 대한항공 직항편을 이용해보자. 대한항공은 토론토, 밴쿠버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주 운항 횟수를 늘리는 등 캐나다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밴쿠버 노선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일 운항한다.
 문의 대한항공 1588-2001 (<http://kr.koreanair.com>)
 온타리오 관광청(www.ontariotravel.net/kr)
 캐나다 관광청(www.keepexploring.kr)
 여행상품 문의 02-2188-4074



리모와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여행

은은하게 빛나는 네모난 은색 하드케이스만 보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 117여 년의 긴 역사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매시즌 선보이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독일 정통 캐리어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히 한 브랜드. 바로 리모와다.

2015년 여름,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클래식한 감성과 브라질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캐리어를 만날 수 있다. Writer 이은정

Bossa Nova, 붐을 일으키다

브랜드 리모와가 1898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오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90단계 이상 거쳐야 하는 제조과정과, 작은 디테일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장인의 세밀한 수작업으로 완성되니 말하지 않아도 제품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다. 2015년, 리모와는 프리미엄 라인에 새로운 'Bossa Nova' 라인을 추가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보사노바는 포르투갈어로 새로운 감각을 뜻한다. 보사노바의 몸체는 가볍고 튼튼한 폴리 카보네이트와 항공기용 알루미늄으로 만들

어 온도, 습도,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작은 디테일도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모서리 부분에 소가죽을 덧대어 더욱 견고하게 마무리했다. 브라질의 대자연 아마존에서 영감을 얻은 '젯 그린' 색상은 이국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멋을 자아낸다. 모서리에 덧댄 가죽 장식은 색상을 베이지와 젯 그린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모서리 부분과 폴리 카보네이트 몸체를 이어주는 스티치 디테일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손잡이에도 패딩 소재를 사용해 그립감이 안정적이며, 부드럽게 이동 가능한 멀티 힐 시스템을 장착해 오랜 시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리어 내부 역시 폭신하고 튼튼한 '패딩' 소재를 새롭게 적용했다. 구조를 나눠 수납하기 쉽고,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Bossa Nova가 이끄는 기부

리모와는 2013년에는 서울대병원 함춘후 원회에 2천만원 기부, 지난 5월에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에 2천만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사우드 에 알레그리아(Saude e Alegria)'를 지원하며 150개 이상의 지역사회 및 환경 발전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사노바를 구매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그대로 사우드 에 알레그리아 단체에 기부된다. 아름다운 나눔을 이끄는 착한 캐리어와 함께 당신의 여행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보고 싶다면 보사노바 네 글자를 기억해두길.





1

시간마저 녹일 듯한 뜨거운 괌의 태양 아래로 가다

괌의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제28회 괌 마이크로네시아 아일랜드 페어 (GUAM MICRONESIA ISLAND FAIR, 이하 GMIF). 2015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섬 대표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바탕 축제를 열었다. 그들의 문화와 예술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행사를 소개한다. Writer 박준현



2

©박유라

마이크로네시아의 생기 넘치는 문화

괌에 도착하여 공항 밖으로 나오면 탄산이 빠진 사이다처럼 후텁지근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훑히고 밀려 들어온다. 미지근한 바닷바람에 야자수 잎이 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멈추었다. 순식간이었다. 잠깐 내린 비로 흥건히 젖어 있던 바닥은 뜨거운 태양 아래 금세 바짝 말랐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광경에 괌에 왔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천혜의 휴양지 괌에는 매년 큰 규모의 축제가 열린다. 쇼핑 천국 괌에서 즐기는 '숍 괌 페스티벌(Shop Guam Festival)'과 함께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GMIF가 그것이다. 이번 28회 GMIF는 투몬 지역의 이파오 해변에 위치한 조셉 플로레스 총독 기념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사이판, 로타, 팔라우, 마셜아일랜드, 축, 티니안, 코스래 등 마이크로네시아에 속해 있는 각 섬의 대표단이 괌에 모여 축제를 연다. 각 섬의 최고 조각가, 대장장이, 전통 낚시 전문가 등이 모여 그들의 문화를 알리고, 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공연장에서는 각 섬의 전통 춤을 공연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공연장 근처의 부스에는 섬 대표단이 섬을 소개하기 위해 팸플



3

©호텔아비바 최종인 기자



4

©Kang kyung min

릿을 나눠주었다. 각 섬의 수공예품을 파는 부스와 전통 음식을 파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다.

꿈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1 쇼핑천국 꿈에서 쇼핑하기

꿈은 섬 전체가 면세구역이기에 대부분의 브랜드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유명 쇼핑센터로는 T갤러리아, 투몬 샌즈 플라자, 꿈 프리미엄 아울렛, 마이크로네시아몰 등이 있다. 그리고 꿈 현지에서 24시간 언제나 생활 필수품을 아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K마트가 있다.

T갤러리아와 투몬 샌즈 플라자는 호텔이 많은 투몬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쇼핑하기 매우 편리하다. T갤러리아에서는 화장품, 패션제품, 명품뿐만 아니라 간단한 기념품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투몬 샌즈 플라자는 T갤러리아보다 브랜드는 적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하게 쇼핑할 수 있다. 아이가 있는 가족여행객이라면 꿈 프리미엄 아울렛과 K마트에 들러 아이용품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마이크로네시아몰은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가 입점해 있고, 한국인에게는 10% 할인 쿠폰도 제공하니 여행객의 소비패턴에 맞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2 정글을 체험하고 싶다면 '정글 리버보트'

꿈 유일의 강 탈로포포, 정글 리버보트는 탈로포포 강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정글을 체험한다. 탈로포포 강 좌우로 울창하게 우거진 숲을 보고 있다면 SBS 인기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씨가 촬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상상에 빠져든다. 탈로포포 강에는 꿈의 명물 '코코넛크랩'이 살고 있다. 땅에 구멍을 파고 숨어 있다가 식빵 조각을 던져주면 어느새 밖으로 나와 식빵을 짹싸게 주워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버린다.

또한 강 상류로 올라가면 대형 메기를 관찰할 수 있지만 물이 맑지 않은 날엔 형태만 겨우 확인이 가능하다. 꿈 원주민이 보트에 함께 타고 가는 동안 야자수 잎을 이용해 머리띠, 부채, 장미 등의 수공예품을 만들어 건네주고, 코코넛 열매를 직접 따

6

©Kang kyung min



5

©박유라

서 여행객에게 코코넛 원액과 코코넛 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차모로인의 역사 알아보기 '타오타오타시(Tao Tao Tasi)'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많은 여행객이 건비치를 찾는다. 아름답다는 말은 건비치의 일몰을 표현하는 데 너무나도 부족하다.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이 바다 뒤로 숨어버린 시간. 하늘 위에 촘촘히 박혀 있는 별빛과 건비치에 위치한 더비치바의 조명만 유일하게 빛나고 있다. 더비치바의 모든 조명이 꺼지는 순간 공연장은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흐른다. 눈부신 조명과 함께 시작된 쇼는 고대 꿈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바다의 별을 등대 삼아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차모로인의 장엄한 여정과 항해의 시간들을 얘기한다. 웅장하게 시작한 쇼는 흥미로운 전개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마치 한편의 대형 뮤지컬을 보는 기분이다. 타오타오타시는 현대적인 연출 기법으로 재탄생한 차모로인의 이야기이다.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공연이면서 차모로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꿈에 간다면 잊지말고 관람해야 할 공연임에 틀림없다.



7

©Kang kyung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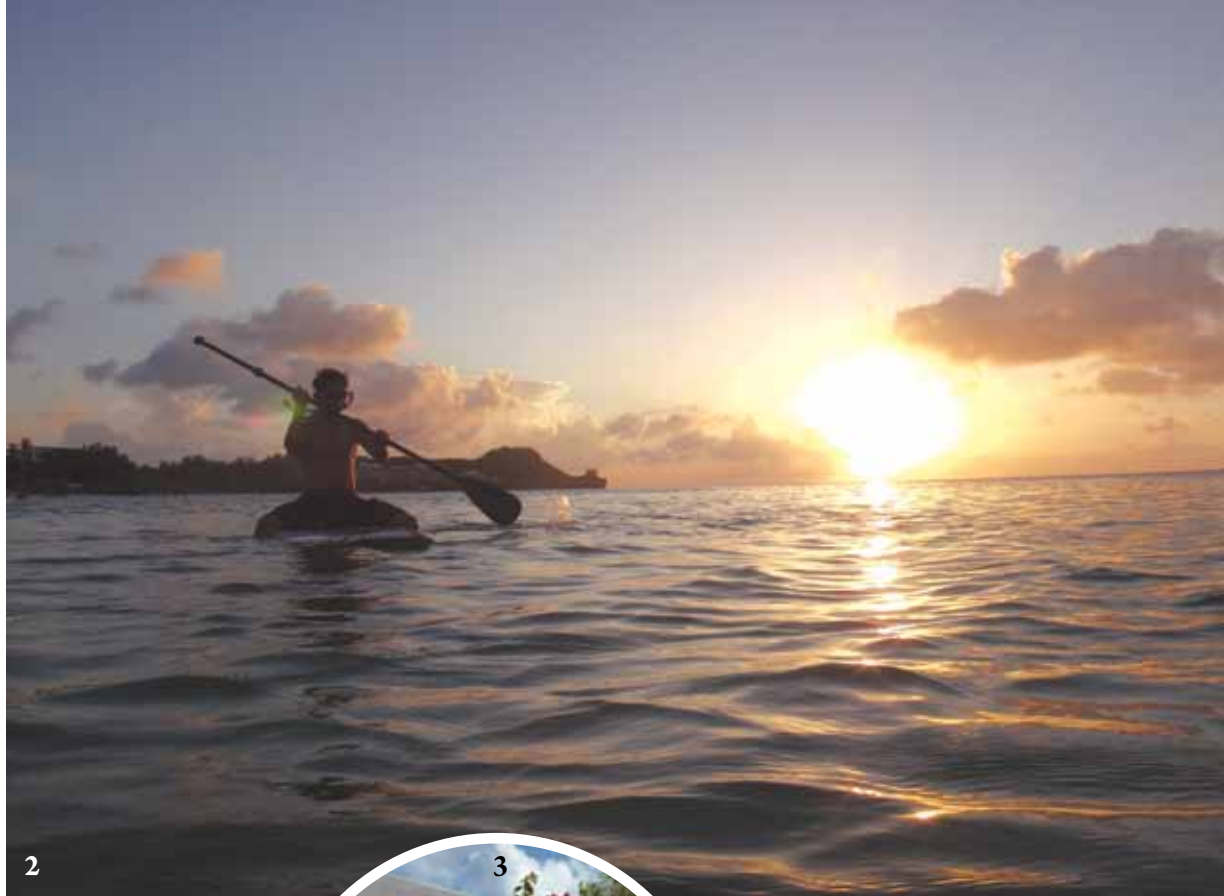
8



9

전남일보

- 1 사람의 절벽 아래에 위치한 탄기스 비치. 여행객보다 원주민이 많이 찾는다.
- 2 GMIF 식전 행사에서 각 섬 대표단이 입장하고 있다.
- 3 탈로포포 강 하류에서 출발하는 정글 리버보트. 보트가 선착장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 4 GMIF 행사장 부스. 야자수 잎을 말려 수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 5 타오타오타시 쇼. 화려한 복장과 안무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6 탈로포포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글 리버보트. 카약을 타고 내려오는 여행객들이 보인다.
- 7 꿈의 명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포스터. 차모로인의 역사와 생활을 한눈에 엿볼 수 있다.
- 8 GMIF 행사장 부스에서 야자수 잎을 이용해 모자를 만들고 있다.
- 9 GMIF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섬 대표단.



2
©박유라



3



4

4 하루 만에 끝내는 '섬 투어'

괌에서는 무더운 날씨 탓에 걷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괌으로 여행을 갔다면 차를 렌트해서 섬 한 바퀴를 유람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관광지답게 차를 렌트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한국 면허증만 있다면 렌털숍에서 쉽게 렌트할 수 있다. 투몬 시내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렌털숍이 있으니 자유여행을 계획한다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섬 투어를 하기에 앞서 물놀이를 계획했다면 수건을 반드시 챙기길 권한다. 괌은 호텔이 아닌 해변이나 수영장에 기본적으로 샤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건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괌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바나나 모양의 섬이다. 섬 가장자리로 이어진 해안도로를 타고 직진만 하면 섬을 일주하게 된다.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지도만 있다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섬 투어를 한다면 사랑의 절벽(Two Lovers Point)과 탄기스 비치, 이나라한 자연 수영장 세 곳은 꼭 둘러보길 추천한다. 사랑의 절벽은 괌 최고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탄기스 비치는 사랑의 절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해변으로, 주로 원주민들이 물놀이를 하는 장소이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자연 그대로의 해변이다. 이나라한 자연 수영장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바닷물이 자연스레 갇혀서 만들어진 곳이다. 자연이 만든 수영장에서 꼭 물놀이를 해볼 것을 추천한다.

렌트한 차를 이용해 섬 투어를 할 때는 북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렌털숍 직원의 애기로는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하며 리티디안 비치의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조만간 북부 투어는 폐쇄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북부에서 사고가 나면 차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차로 섬 투어를 계획하는 여행객이라면 유의하길 바란다. 또한 괌에 길게 뻗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는 산호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빗길에 쉽게 미끄러진다. 운전 도중 비가 온다면 반드시 감속해야 한다.

5 크레이지 트레킹 '부니 스톱스(Boonie Stomps)'

토요일 오전이면 차모로 빌리지에서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은 무리를 발견할 수 있다. 단돈 2달러를 내면 괌의 숨겨진 비경을 탐험하는 독특한 트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괌에서 즐기는 다른 액티비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매주 트레킹 코스가 달라지며 난이도도 상중하의 세 가지 코스가 있다.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과 식사는 트레킹에 참여하는 여행객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괌의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 1 탄기스 비치에서 원주민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 2 투몬 만에서 즐기는 S.U.P(Stand Up Paddle boarding). 앉아서도 즐길 수 있다.
- 3 사랑의 절벽에 걸려 있는 열쇠들.
- 4 멀리서 바라본 사랑의 절벽.
- 5 GMIF 행사장 부스에서 판매 중인 수제품.
- 6 GMIF 행사장에서 괌 전통악기를 연주 중인 섬 대표단.



5

©Kang kyung min



6

©로제이비어 최중인 기자

자연이 만든 작품, 중국 대련 장흥도 골프클럽

한여름, 골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더위만이 아니다. 태풍과 장마는 내리쬐는 햇볕만큼이나 야외 활동을 힘들게 한다. 예측할 수 없는 한국의 여름 날씨, 해외로 골프 투어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 인천공항에서 딱 한 시간이면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Writer 이은정



1

골퍼라면 누구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골프를 즐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갑탄이 절로 나오는 멋진 풍경 속에서의 흥미진진한 라운딩. 지금까지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그림을 현실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낭만적인 유럽의 풍경 부럽지 않은 그곳.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탄생한 중국 장흥도 골프클럽에 가면 된다.

중국에서 즐기는 한여름의 쾌적한 라운딩

대륙 스케일에 걸맞은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대련은 중국 요녕성 동쪽 반도의 남단에 있는 연해 지역이다. 북한 평양과 같은 북위 41도에 위치해 여름에도 선선한 기후를 자랑한다. 대련 시내에서 북쪽으로 차로 약 1시간 20분 가면 장흥도에 닿을 수 있다. 중국의 섬들 중에서 해남도에 이은 3번째로 큰 섬이다. 중국 북방을 대표하는 청명한 바다빛과 해안선이 장관을 이뤄 관광객들이 끊임 없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장흥도 골프클럽은 해안가에 있으며 7.121야드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72파 18홀로 이루어져 있다. 전 홀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시사이드 코스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백사장 파도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링크스 코스'로 설계했다. 4대 메이저 골프대회 중 가장 역사가 깊고, 매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브리티시 오픈 대회'가 진행되는 코스를 그대로 재현했다. 장흥도 골프클럽이 보유한 링크스 코스의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렸으며, 인위적 조경 없이 자연 친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홀의 구성, 연못, 모래, 언덕,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해 설계했다. 페어웨이는 해안선과 산의 자연미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링크 스타일로, 도전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디자인했다. 높은 벙커와 깊고 거친 러프, 강한 바람을 동반해 골퍼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한다. 다소 거칠어 보일 수 있는 장흥도 골프클럽은 가까운 중국에서 부담 없이 링크스 코스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2



3

- 1 장흥도 골프클럽 코스 전경.
- 2 아늑한 분위기의 골프텔.
- 3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한 식단.
- 4 장흥도 G.C에서 보이는 해변의 풍경.

4

장흥도 G.C를 주목하는 이유

장흥도 골프클럽에서는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럽하우스, 골프텔, 프로샵, 레스토랑, 연습장 등 많은 부대시설을 마련했다. 클럽하우스 안에 객실 및 골프텔을 함께 운영해 편안하게 지내면서 온전히 골프에 집중하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일본 스타일로 지은 골프텔은 1동과 2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독특한 일본의 다다미 스타일 객실에서도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휴식을 원한다면 장흥도 유일의 특급 호텔인 돈하오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면 된다. 돈하오 호텔은 대련 장흥도 해안가에 있는 호텔로 장흥도 G.C와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만4000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객실, 연회장, 회의실, 대형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휴양 및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레스토랑에서는 대련 시내 5성급 호텔의 일식 셰프를 초빙해 일식과 한식의 조화로운 식단을 제공한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매일 다른 한국식 정찬 차림으로 조식을 선보인다. 중식은 일본식 세트 요리로 선보이는데 해산물 나베부터 비프카레, 생선, 고기조림세트 등 7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저녁 식사로는 샤브샤브, 김치전골, 각종 찌개류 등도 맛볼 수 있어 이국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골퍼들일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중국 대련 장흥도 골프클럽은 무엇보다 가까운 위치 조건을 자랑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련국제공항까지는 약 1시간의 비행시간만 소요된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이 오전과 오후 매일 운항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말을 이용한 골프 투어를 즐기기가 좋다. 올여름 해외 골프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짧은 이동 거리와 대자연의 전망에 압도되는 장흥도 골프클럽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주)제이홀리데이 02-6349-4949 홈페이지 www.jholiday.kr





유어스테이지와 동행을...

꿈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가득 차 있더라도 꿈에 도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함께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면 분명 축복받은 일이다.

나의 꿈을 향하는 길에 동행해줄 동반자에 관한 이야기. Writer 육영애(유어스테이지 시니어리포터)

컴퓨터에 대한 신기함과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대해 어렴풋하게 호기심이 일었지만, 쳐다보기만 해도 겁이 나고, 또 청소하며 잘 닦다가도 뭔가 잘못 건드리진 않았는지? 전전긍긍이었다. 기계치인 나는 자판을 두드릴 때에도 놀랐고, 모든 게 어려운 기술로 보여 선뜻 컴퓨터를 가까이할 수 없었다. 직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떻게 커는지도 몰랐고 끄는 건 더 겁났다. 젊은 애들은 무조건 켜놓고 해보면 된다는데 난 어려웠다. 군대 간 아들의 빈방에 놓인 컴퓨터를 1년여간 물끄러미 보고만 있다가 건드려나 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끄고 켜는 걸 보아왔으니 영 아니면 꺼버리자는 생각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그런대로 글 쓰는 건 되었다. 하지만 백업이라는 걸 몰랐으니, 몇 년 쓴 글이 단 1초 만에 휘리릭 다 날아가버렸다. 억울했다. 어찌나 슬프고 낮이 나갔던지 다시는 그 앞에 가질 못했다. 원수 덩어리 같았다.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그 모든 글.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가버렸다.

내가 컴퓨터에 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오기가 생겨 다시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앉아서 순서를 되짚어보며 켜다. 그리고 메일을 꺼내보고 글도 써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옛날을 더듬으면서 종일 같이 놀았다. 뒤엎쳐 있던 명주실 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리듯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용기도 새록새록 생기면서 여기도 저기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만난 게 유어스테이지라는 곳이었다.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그 글귀 하나로 신이 나서 회원 가입하고 글을 써서 올려버렸다.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설레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리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뻥뻥이질 쳤다. 내 글은 올려졌고 내 마음은 하늘을 날았다. 나의 동행, 나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기쁨. 내 삶의 원천인 배우는 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 한정된 시간에 겹치기로 글 쓰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 작년 8개월 동안은 배우는 게 어찌나 길고, 과정이 힘들었는지 글을 못 쓰다가 그거 끝나자마자 또 쓰고 있다.

어려서는 일기를 빠짐없이 썼고, 편지 쓰기도 좋아했으며 핸드폰 메모도 엄청 이용한다. 그저 생각만 나면 아무 종이에든 즉시 보이는 대로 쪽지메모를 해놓는 습관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글을 안 올린 동안에 유어스테이지에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인다. 글 쓰기만 간신히 하고 글 읽기도 예전처럼 잘할 수가 없다. 읽을거리도 많은 데다가 여긴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가우뚱, 화면도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이다. 지금 익혀나가느라 여기 기웃, 요기도 기웃 그러면서 어머님 비위도 거스르지 않고 잘 맞춰야 하

는 자질구레한 일상에 답글 달기도 늦어져 죄송해지곤 한다.

그런데 어! 어? 여기 이런 것이? 내 얼굴이 눈에 띄었다.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기분이었다. 레벨이라는 것이 10이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요즘 1로 되어 있는 걸 보니 작은 숫자가 나온 것? 매일 하나씩 계속 놀라고 있는 중이다. 이벤트도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니 상품권, 연극표도 받고 언젠가는 매운 떡볶이도... 홈페이지 출석부가 계속 나를 약 올린다. 6월엔 메르스로 쉬니까 절대! 했더니 6월 8일에는 그것도 이른 시간, 오후 7시부터 '점점'이라고 안 열어주는 건지. 점점 시간을 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까지 몇 번을 시도했지만 이 억울함이란...!

다 좋을 수는 없다. 유어스테이지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시작한 글 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작가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쓸 것이다. 하면 한다! 라는 정신으로 살아왔으니 중도에 그 만들 수는 없다.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도, 내가 작가가 안 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 나라에 가서도 분명 쓰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며칠 전에 사무실에 갔다가 새로 만든 회사 소개 책자를 보고 마음이 초등학교 1학년처럼 덩달아 새로워졌다. 또 다짐했다. 이 인연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을. 오오~ 유어스테이지는 나의 꿈을 향하는 길에 동행해줄 동반자이다.

시니어리포터를 모집합니다

시니어포털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는 50세 이상 포털 회원을 대상으로 시니어리포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리포터는 자신의 생각이나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글로 쓰고, 작성한 원고는 유어스테이지 편집부 검토를 거쳐 포털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글이 정식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매달 한 편의 글을 선정해 <시니어조선>에 기명으로 게재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리포터는 유어스테이지 회원으로서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218-6234





파이토케미컬 먹기 딱 좋은 나이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찾고 있는 것일까? TV 프로그램
은 물론이고 서점을 가도 파이토케미컬 관련 서적이 눈에 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에 대해 식이요법 전문가
탁상숙 소장을 만나 그 궁금증을 풀었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이신영(C. 영상미디어)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그 뜻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리스어
로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물질을 뜻하는 케미컬을 합친 말로, 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
는 화학물질을 총칭한다. 쉽게 말해 그냥 채소와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10년간 파이토케
미컬에 대해 탐구한 탁상숙 소장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고 말한다. 그
래서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함유된 채소와 과일을 효과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배우고
연구했다. 먹는 법을 제대로 알고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에 더 유익한 파이토케미컬. 특히 시니어가
눈여겨봐야 할形形色색의 채소와 과일을 엄선했다.

시니어의 건강을 지켜줄 힐링 음식 8

1 전립선이 걱정된다면 붉은 토마토

토마토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항산화력이 강하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고 체내
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준다. 노인성 질환과 고혈압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전립선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토마토는 익힌 다음 오일을 넣고 갈아서 먹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가장 높다.

2 면역기능을 강화해주는 당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들어 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
민A로 전환되어 눈과 피부건강, 면역기능 강화, 상피세포 건강은 물론 학습력, 기억력 향상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력이 높아진다. 양배추, 양파와 함께 수프를 만들어 먹거나, 사과나 토마
토 등과 함께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좋다.

3 혈관 질환에 효과 좋은 감귤류, 오렌지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C가 풍부하고 헤스페리딘과 베타-크립토크산틴 함량이 높다. 이들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조절과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좋다. 또한, 위암, 구강암,
식도암 등의 발병률 감소에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인다.

*껍질에 유효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껍질을 말린 뒤 생강과 계피를 넣고 끓여서 오렌지 생강
계피차를 만들어 먹으면 항암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4 백내장을 예방하는 시금치

시금치는 미네랄과 비타민 A, B, 철분이 풍부하다.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은 눈을 건강하게 해주
고 백내장 및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을 막아준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기름과 함께 요리해서 먹는
것이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데 좋다.

*살짝 데쳐서 기름을 넣고 무쳐 먹는 것이 좋다. 양파와 표고버섯을 채를 썰어 먼저 볶다가, 살짝 데
친 시금치를 넣고 다시 한 번 살짝 볶은 뒤 참깨를 뿌려 먹으면 시금치 성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해독 기능이 뛰어난 케일

케일에는 비타민C와 칼슘 등이 풍부하며 설포라판, 인돌, 클로로필 등의 파이토케미컬이 들어 있
다. 우리 몸에서 항암작용을 하며, 눈을 보호하고 심혈관계 건강에 효과적이다.

*케일을 끓이면 설포라판 수치가 줄어들므로, 찌거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사용하면 줄어들지
않는다. 찜기에 1분 정도 살짝 찐 케일을 잘게 잘라 사과,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를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다.

6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좋은 양파

케르세틴, 디 알릴설파이드 등의 파이토케미컬이 들어 있는데 이들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
소시킴으로써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한, 혈전 형성과 혈액 응고를 막고 혈압을 낮춘다.
양파에 풍부한 황화합물은 체내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춘다.

*양파를 물에 넣고 끓이면 케르세틴 성분이 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온에서 수프를 끓여 국물까
지 먹어야 케르세틴 성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



7 치매에 좋은 블루베리

블루베리에 들어 있는 다양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 및 항염증 작용으로 산화 스트레스로
부터 신경계의 퇴화를 막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인지능력을 강화하
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하므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8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우엉

우엉은 식이섬유와 타닌, 클로로겐산, 카페인산 등이 풍부하다. 따라서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조절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항산화 효과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좋다.

*갈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썰어서 식초 물이나 레몬 물에 담가놓는 것이 좋다. 우엉은 성질
이 찬 채소이므로 평소 몸이 냉하거나 설사를 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파이토케미컬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음식 궁합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음식을 3~4가지 이상 섞어서 먹는 것이 효과가 좋다. 가령 콩은 녹차나 브
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먹었을 때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양배추는 사과와 함께 먹을 때 건강 효
과가 좋다. 카레 성분인 강황은 검은 후추와 함께 먹었을 때 강황 속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인다. 토
마토, 케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더 높일 수 있다. 토마토, 오렌지, 당근을 함께 먹으
면 항암효과가 높다.

〈파이토케미컬을 먹어라〉탁상숙 지음 / 15,000원 / 다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속에는 어떤 파이토케미컬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그 영양소는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건강 효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한다. 실제로 파이토 식이요법을 실
천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간편한 조리법으로 파이토케미컬을 맛
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담았다. 당신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꿔줄
지침서. 문의 070-8711-9088 (파이토 치료 음식 연구소)





1

Affordable Art Fair ART FOR YOU! 예술을 통한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

올가을, 모두가 예술과 사랑에 빠지는 축제가 열린다. 대중에게는 예술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작가에게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어포더블 아트페어가 바로 그것.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글로벌 아트페어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Writer 이은정 · Resource 어포더블아트페어 서울

관객, 나만의 아트를 쇼핑하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예술을 사랑한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마주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중 '창작'을 거친 것은 무엇이든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공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를 '예술'이라 명명하는 순간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더구나 '예술'을 구매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만 느껴진다. 생각해보자. 흔히 '미술작품 감상'이라 하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마저 풍기는 전시장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곁섬으며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 풍경이 먼저 떠오른다. 행여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타나 가격대를 물어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깜짝 놀라 지레 포기하기 일쑤다. 가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중소 갤러리 투어를 해 보기도 하지만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또 구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더 많다. 어포더블 아트페어(Affordable Art Fair, 이하 AAF)는 이처럼 예술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전시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작품을 감상하고, 또 구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일단 아트페어라는 자체가 미술품을 마음껏 즐기러 오는 축제의 장이다. 이곳에서는 마치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하듯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마음에 드는 작품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 AAF에서는 '어포더블'이라는 말 뜻 그대로,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작품을 엄선해 소개함으로



- 1, 4, 8 AAF 홍콩의 전시 풍경. 아시아 미술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듯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 2 AAF 브리스톨의 모습. AAF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3 AAF 런던에서 작품을 구매할 관객이 즐거운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다.



3



4

써, 전시에 참가한 관객들이 누구나 손쉽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입 후에는 즉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포장 전문가가 무료로 작품을 포장해준다. 때문에 AAF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 중 25%는 생애 처음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기너들이라고. AAF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0만원부터 시작하는 작품이 멀리 이스라엘, 러시아,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로부터 서울을 찾아온다. 이렇게 관객들은 전 세계의 미술품을 보다 투명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거실, 방 등의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그리고 또 마음에 꼭 드는 작품을 골라 배치하는 것. 모든 아트 컬렉터가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감을 얻는 것으로 컬렉팅을 시작한다. 예술품을 만나 새로운 기쁨을 얻게 하는 라이프가 AAF가 지향하는 바다.

또, AAF에는 현대미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아트 강연과 워크숍이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성인과 똑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한다. 전 세계 AAF가 미술 교육에 투자한 액수는 총 34억원 정도라고 한다. 모두가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생활 속에서 향유하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AF가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 애정을 쏟는 이유다.

작가, 시장을 만나다

AAF에서 즐거운 사람은 관객뿐만이 아니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소위 '예술'을 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Market'이다. 특히 신진 작가일수록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쉽지가 않다. AAF는 실력은 있지만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이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역할을 한다. 1996년, 런던의 갤러리들과 현대 미술이 급속하게 성장할 무렵 윌 램지(Will Ramsay)는 런던의 남서쪽에 '윌의 예술 창고(Will's Art Warehouse)'를 열었다. 그는 곧 작품성이 뛰어나지만 단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들의 작품을 모아 50~2천5백파운드의 가격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행사가 성공하자 윌 램지는 이에 영감을 받아 1999년, 런던의 벤티시 파크에서 재능 있는 무명작가들을 위해 본격적인 아트페어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어포더블 아트페어다. 이렇게 시작된 AAF는 현재 런던, 뉴욕, 밀라노, 브뤼셀 등 3대륙 13개 도시에서 17개의 페어를 개최하는 글로벌 페어로 성장했다. 그리고 AAF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영 탠트(Young Talent)'라 불리는 신진작가 특별 전시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된 금액은 약 1백만 파운드로, 한화 17억 1876만원에 달한다. AAF의 역할은 단지 작가와 관객을 연결해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갤러리와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이는 AAF가 글로벌 아트페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서울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AAF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떠오르는 현대 미술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아시아 미술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현대 미술을 널리 알리고, 작가들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AF는 예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누구나 미술품을 구매해서 집집마다 작품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보며 행복해하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예술이 다가가기 쉽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가을, AAF 서울 2015에서 나만의 예술 작품을 찾아 사람에게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5



6



5 AAF 홍콩에 출품한 한국 작가의 작품.
Art Company MISOOLSIDAE, Park Hyung-jin, Gate of Truth, 2013. Mixed media on lenticular screen.
6 AAF 런던 전시장을 찾은 꼬마숙녀들.
7 AAF 뉴욕 광고 캠페인. 누구든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 즉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잘 표현했다.



8

국내 최초의 글로벌 브랜드 아트페어, AAF 서울 2015

세계적인 예술 박람회인 어포더블 아트페어를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어포더블 아트페어 서울 2015'는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아트페어로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 갤러리들이 참여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40여 개, 해외 40여 개 총 80여 개 등 갤러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그들이 심사숙고해 엄선한 실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갤러리로는 미화랑, 박영덕 갤러리, 선화랑, 예화랑, 갤러리조션 등이 있으며 구분창, 구성수, 아니시 카푸어, 마크 킨 등 유명 작가는 물론 영국 본사와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450여 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AAF의 정신을 살려 대중이 미술계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아트 토크, 아트 투어, 워크숍 등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페어 참가객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AAF 서울 2015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50만원에서 1천만원 선의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될 예정이다. 모든 작품에는 가격이 명시되므로 관객들은 예산에 맞게 작품을 고를 수 있다.

장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알림 1, 2관 기간 2015년 9월 11일 ~ 13일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 만 12세 미만 및 65세 이상 무료.

홈페이지 affordableartfair.com/seoul 티켓 문의 이메일 seoul@affordableartfair.com, 전화 02-3450-1562



2015 Happy Life를 위한 프로젝트!

시니어파트너즈의 노년 플래너 아카데미

중장년 교육 전문기업 (주)시니어파트너즈는 이번 여름 시니어들의 행복을 어루만질 수 있는 4가지 특별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4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Writer 구희근(시니어파트너즈 교육팀장)

(주)시니어파트너즈(대표 박은경, www.yourstage.com)는 ‘노년 플래너 아카데미 과정’,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은퇴 종합 프로그램 설계’ 등 시니어들의 인생 제2막에 대한 교육 전문 기관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니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가족, 여가, 취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강을 통해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눔’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진행되는 4가지 특별 프로그램인 ‘로맨틱 플라워 핸드타이드’, ‘나의 책 출간’, ‘포토 에세이 작성 및 제작’ 과정 ‘캘리그래피 교실 입문반’에 대해 소개하니 그동안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이나 꿈을 마음껏 실행에 옮겨보길 바란다.

※ 교육 장소는 (주)시니어파트너즈 평생교육원 BOAZ 강의장(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이며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시니어파트너즈 홈페이지(www.yourstage.com)를 참조. 문의 시니어파트너즈 교육운영팀(02-3218-6246, 6248)

시니어파트너즈 노년 플래너 아카데미 과정

내 손으로 만들어 선물하는 명품 꽃다발

‘로맨틱 플라워 핸드타이드’ 과정

-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위한 로맨틱 꽃다발 만들기 강좌.
- 총 4회에 걸쳐 사방화, 플라워 박스, 돔 핸드타이드 등 고급 핸드타이드 강의 진행.
- 아우디, 마몽드와 콜라베이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플로리스트의 직접 강의.
- 꽃다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핸드타이드 전문 스킬 습득의 기회!

교육 일정 2015년 8월 개강(하루 2시간, 주 1회, 4주 수업)

교육 정원 최대 인원 15명(선착순 마감)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 출판협회 정식 저자로 등록

‘나의 책 출간’ 과정

- 삶의 여정 등 자전적 에세이 또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책 출간 보장 프로그램 (종이책 & E-book).
- ‘나만의 책’이 최소 5주 안에 정식 출간, 출간과 동시에 저자로 등록, 저자 인세로 수입 창출 가능.
- 출간 비용 대폭 감소, 절판되지 않는 POD(Publish On Demand) 출간.
- 포인트 라이팅 기법을 통해 문장 기획력과 기술력 향상.

교육 일정 2015년 8~9월, 10~11월(일 3시간, 주 2회, 5주, 총 30시간)

교육 정원 기수별 30명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한곳에 담아내는 나만의 포토 에세이

‘포토 에세이 작성 및 제작’ 과정

- 아름다운 그때, 기억의 단편을 담은 행복한 기록. 사진으로 추억하는 포토 에세이 작성 과정.
- 사랑스러운 손주의 모습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의 편지를 담아 선물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 만들기.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정식 출판, 판매 및 인세 수입 창출.

교육 일정 2015년 8~9월, 11~12월 교육 정원 기수별 30명

시니어의 생각과 철학을 담아내는 손 글씨 작품 활동

‘캘리그래피 교실 입문반’

- 붓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글씨로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
- 다양한 글씨체 개발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취미 과정.
- 캘리그래피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기본 과정.

교육 일정 2015년 8월 중 개강 교육 정원 기수별 30명



WATCH

론진, 마스터 컬렉션 커풀 워치

론진이 커풀 워치로 스타일링하기 좋은 '론진 마스터 컬렉션'과 '론진 마스터 컬렉션 레이디'를 소개한다. 남성용 워치 '론진 마스터 컬렉션'은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704.2를 탑재하고 46시간 파워 리저브, 30m 생활 방수기능을 갖췄다. 여성용 워치 '론진 마스터 컬렉션 레이디'는 25.50mm의 아담한 다이얼 사이즈에 Cal.595/592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4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스테인리스스틸 브레이슬릿은 블랙 또는 브라운 엘라게이터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다. 문의 02-3149-8241

HOTEL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클럽메드

황금연휴 특가 프로모션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클럽메드가 9~10월에 찾아온 줄을 여행지 3곳의 리조트 특가 프로모션 서비스를 선보인다. '중국 개펄', '말레이시아 채러팅 비치', '인도네시아 빈탄 아일랜드'를 소개한다. 문의 02-3452-0123

FASHION



구호, 캐주얼 하프 점퍼

구호가 이번 시즌 고급스러운 버건디 컬러가 돋보이는 '캐주얼 하프 점퍼'를 선보인다. 소매 부분에 다크 그레이 배색 디테일로 구호만의 캐주얼한 무드를 더했다. 폴리코튼 혼방 소재로 착용감이 가볍고, 환절기에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하기 좋다. 문의 02-514-9580

FURNITURE



덕시아나, 덕스 노르딕 론칭 1주년 덕시아나가 지난해 출시한 '덕스 노르딕' 침대대의 국내 론칭 1주년을 맞았다. 덕스 노르딕 침대는 수천 개의 연속 코일 더블 레이어 시스템과 상하단을 스프링으로 분리한 디자인으로 충격 흡수력이 강하고 인체에 맞춘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02-512-6512~3

CAR



BMW, 뉴 7시리즈 공개

BMW가 지난 7월 인터내셔널 미디어 행사를 통해 'BMW 뉴 7시리즈'를 공개했다. BMW 뉴 7시리즈는 차체 구조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적용, BMW 그룹의 최신 엔진 탑재, BMW 뉴 740e에 적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다. 문의 02-3441-7800

FURNITURE



다다, 한국 소름 리뉴얼 오픈

이탈리아 하이엔드 주방 브랜드 다다가 방배동에 리뉴얼 오픈했다. 2014년부터 출시한 다양한 디자인의 여섯 가지 주방가구를 선보인다. 북유럽 감성을 담은 '인다다'부터 수납장을 강화한 '반코2.0', 혁신적인 디자인의 '트림' 등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32-2959

BEAUTY



랩 시리즈, 덴시파잉 샴푸 & 컨디셔너

랩 시리즈가 남자의 풍성한 모발을 위한 '덴시파잉 샴푸 & 컨디셔너'를 출시한다. '덴시파잉 샴푸'는 미세한 거품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해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덴시파잉 컨디셔너'는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준다. 문의 02-3440-2757



FURNITURE

영동가구, 히몰라 코지폴 2.0

영동가구가 히몰라의 리클라이너 체어 코지폴 2.0을 소개한다. 독일에서 만드는 히몰라는 60년 이상의 숙련공 기술과 30년 동안 쌓은 리클라이너 제조 노하우를 접목한 제품을 선보이는 업홀스터리 가구 브랜드다. 구조적인 실루엣과 화려한 색상의 코지폴 2.0은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착석감이 뛰어나다. 히몰라의 최신 기술을 담은 내장된 발 받침대를 비롯해 원하는 위치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등받이, 손잡게 원하는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까지 이 모든 조정은 자동과 수동 모두 가능하다. 문의 02-547-7850

FASHION



에르메네젤도 제냐, 2015 A/W 꾸뛰르 컬렉션

에르메네젤도 제냐가 꾸뛰르 컬렉션의 2015 가을/겨울 시즌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제냐의 모토를 표현했으며, 손안에 담긴 작은 식물, 흙의 이미지로 환경적 연대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의 02-2240-6524

CAR



랜드로버 코리아, 신차 교환 보상 서비스

랜드로버 코리아는 '프리미엄 컴팩트 SUV'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구매하고 신차 교환 보상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사고로 공임 포함 차가 30%이상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새 차로 교환해준다. 문의 080-898-8800

HOTEL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나잇 아웃도어 풀 패키지

임피리얼 팰리스는 휴가철을 맞아 '나잇 아웃도어 풀 패키지'를 선보인다. 클럽디럭스 룸 1박 숙박권 등을 포함한 '빈티지 나잇 서머'와 코너 스위트룸 1박 숙박권 등으로 구성된 '앤티크 나잇 서머' 두 가지다. 문의 02-3440-8000

BEAUTY



숨37' 워터-폴 크림 듀오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숨37이 스페셜 기획 세트 '워터-폴 크림 듀오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워터-폴 타임리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50ml 정품과 '워터-폴 타임리스 워터 젤 크림' 20ml로 구성했다. 문의 080-023-7007

FASHION



브리오니, 2015 F/W 컬렉션 론칭

브리오니가 승마문화와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2015 F/W 컬렉션을 제안한다. 브랜드의 철학인 '전통과 혁신의 결합'을 표현했다고. 모던한 분위기의 켈트 블루종, 벨티드 캐시미어 코트, 스리버튼 재킷 등으로 다양하게 선보인다. 문의 02-3274-6482

CULTURE



최현우 매직 콘서트, '더 브레인' 개막 전 세계 마술 트렌드인 '멘탈 매직'의 업그레이드 공연 '더 브레인'을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광림 아트센터 BBCH홀에서 한 달간 만날 수 있다. 마술 쇼 최초로 헬리캠을 도입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최신 마술도 선보인다. 문의 1577-3363

BOOK



조호현, 고수의 생각법

최근 바독을 모티브로 한 만화 <미생>이 인기몰이를 한 가운데, 바독 외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조호현이 생각의 힘에 대해 에세이를 발간했다. 세계 최고의 고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그의 노하우를 훑쳐볼 절호의 기회다. 조호현 지음, 인플루언셜, 1만5천4백원.



마사 & 겐

'믿고 읽는 작가'로 불리는 미우라 시온의 신작. 표지부터 읽고 싶은 욕구를 마구 불러일으킨다. 성격도 라이프스타일도 전혀 다른 두 할배가 이층다용 다투며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다. 황혼 이혼당하기 직전인 전직 은행원 마사와 일본 전통비녀 장인 겐이 선보이는 시트콤 같은 일상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미우라 시온 지음, 흥문주 옮김, 비채, 1만3천원.



행복한 은퇴

은퇴 후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하루 종일 붙어 지내야 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다. 30년 이상 부부 심리상담을 해온 임상심리학자가 은퇴 후 부부 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은퇴를 맞이 전 준비해야 하는 것부터 은퇴 후 부부 생활 10계명까지, 현실적이고도 살뜰한 조언이 실사례와 함께 담겨 있다. 세라 요게브 지음, 노지영 옮김, 이룸북, 1만5천원.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사 표현보다는 욕하는 심정에 말실수를 하거나 꼭 해야 할 말을 삼키고 병을 키우는 것에 더 익숙하다. 만약 당신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영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가 들려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길 추천한다. 스킵이 다소 서양식이지만, 이 정도는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린 캔들 지음, 박다솜 옮김, 길벗, 1만3천원.



A JOURNEY THROUGH TIME – WITH RIMOWA

The 1920s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 air travel and the golden age of Hollywood. In 1919, Hugo Junkers presented the world's first all-metal commercial aircraft. It was made using the aircraft aluminum alloy discovered by Alfred Wilm in 1906. In 1950, RIMOWA presented its suitcase with the unmistakable grooved design made of the same material – at the time, it was the lightest suitcase in the world. RIMOWA was a real pioneer in the sector, starting the trend for lightweight luggage back then.

RIMOWA Stores Korea : 청담스토어 02.546.3920, 명동스토어 02.6361.8320, 신사스토어 02.540.392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44, 본점 02.3438.6142, 대구점 053.245.2211,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3920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3213.2254, 본점 02.2118.6077, 부산본점 051.810.3166, 센텀시티 051.730.3253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639, 갤러리아 WEST 02.6905.3921, 롯데호텔 월드점 02.2143.1043, AK 플라자 분당점 031.8023.2166



www.rimowa.com